

“AI 연기자 가능성 무궁무진... 미디어엔터산업 새롭게 혁신”

AI 기업인

김태수
네오사피언스 대표



네오사피언스 김태수 대표

/손진영 기자 son@

2018년 미국의 레드 사이트에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말을 하는 영상은 큰 화제를 모았다. 평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투 그대로에 어설플 한국어로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나려고 이 기술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실제 같은 이 영상이 인공지능(AI)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지면서, 9시 뉴스, 아침프로 등에 연이어 소개됐다.

이 영상을 만든 AI 스타트업인 네오사피언스는 지난해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또 한번 화제를 모았다. 장지성 씨가 가상현실(VR) 기술로 3년 전 난치병으로 하늘로 떠나보낸 일곱살 나연이를 만나는 장면은 유튜브 조회수 2800만뷰를 넘길 정도로 큰 감동을 선사했다.

네오사피언스 김태수 대표는 “나연이의 음성을 기본으로 하고 또래 아이 여러 명의 목소리를 녹음했고,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나연이 음성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네오사피언스는 ‘AI 음성합성 기술’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만, 김 대표는 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AI 기술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혁신하는 회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 브레

인엔지니어링(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LG전자 정보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쉐커퀴에 이직해 컴퓨터비전과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해온 ‘AI 음성’ 분야 전문가이다.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박사 수료 LG전자 연구소·쉐커퀴 등에서 근무 영상 아우르는 휴먼플랫폼 목표 “배우 등 디지털휴먼 서비스 다양화”

“쉐커퀴 동료, 카이스트 연구실 후배와 같이 창업해 감정을 표현하는 음성 합성 기술을 개발했어요. 2017년 AI 학회 뉴립스학회 워크숍에 논문을 냈는데, 당시 딥러닝 방식으로 감정을 합성한 것은 전 세계 최초였어요.”

네오사피언스가 개발한 AI 성우의 목소리로 감정을 표현하고, 외국어를 합성하는 기술은 아직도 아마존 논문에서는 ‘운율이 조정되는 음성합성 기술’로 소개되고 ‘6초 음성으로 목소리를 카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논문에도 소개되고 있다.

“비디오를 제작할 때 성우를 쓰려면 비용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어요. 오디오북을 400페이지 정도 녹음하려면 6~7시간 녹음해야 하고, 700~80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요.” 김 대표는 성우가 직접 출연하지 않고 AI 성우로 내레이션을 한다면 효율은 극대화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로 2019년 AI 성우 ‘타입캐스트(typecast)’를 출시, 60여종의 AI 성우 음성을 제공하고 있다. 타



네오사피언스의 AI 성우 ‘타입캐스트’ 서비스. /네오사피언스

입캐스트 서비스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가입자수 61만명을 돌파했고, 유료 가입자수도 수천명에 이른다.

“방송국 PD들도 돈을 내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시어부’에도 활용됐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높은 퀄리티가 보장되어야만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술력은 인정받은 셈입니다.”

네오사피언스는 밀레의 서재량 협력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데 AI 성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오디오북은 1달에 수백권을 녹음하기 힘든데, AI로 500권도 거뜰히 녹음할 수 있고, 비용은 1/10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킬미켈라 등 AI 휴먼이 큰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콘텐츠를 만들려면 사람이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동작하고 뒤에 성우가 붙어 연기를 하는 등 작업해야 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고, 텍스트로 음성을 만들고 얼굴 표정에 대한 파라미터를 만들면 가상휴먼이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딥

페이크 기술로 사람 형상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 하반기에 이 같은 AI 연기자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 합성까지 아우르는 AI 휴먼 플랫폼을 제공할 생각이다.

“AI 연기자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연기도 가능해집니다. 말하는 간단한 동작부터 동적인 3D 모션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연기자를 고용하고 스튜디오를 섭외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입캐스트는 하이브에듀는 물론 엔터테인먼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회사에서 사용돼 매년 5~6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원 매출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글로벌 서비스를 잘 셋업하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대표는 총 62억원의 누적 투자를 받았지만, 공격적 행보를 위해 올 하반기 시리즈B 투자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휴먼으로 AI 연기자, 아니운서, 배우, 광고모델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타입캐스트를 AI 쇼호스트나 강사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또 전 세계 어느 언어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확장해나갈 생각입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제기... “재심의 필요” 중진공, 탄소중립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의제기서 고용노동부 제출 “일자리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

중소기업중앙회가 김기문 회장이름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19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고용부에 제출한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을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시기에도 최저임금이 올랐으며, 코로나19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재심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분기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만6000명이 감소했다. 2분기엔 7만2000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명, 6만4000명이 늘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1.7%는 경영·고용 회복에 1년 이상 걸리거나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인 만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100억 예산 편성, 30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을 신설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과 ESG경영 전환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탄소저감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수준진단을 통해 심층 컨설팅

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저탄소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이며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총 300개사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슈퍼 게릴라워크’ 이벤트

공영쇼핑이 개국 6주년을 맞아 19일부터 한 주간 7개 상품을 10분간 초특가에 판매하는 ‘슈퍼 게릴라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영쇼핑이 개국 6주년을 맞아 선보

이는 ‘슈퍼 게릴라워크’에서는 ▲숯물티슈 20팩 ▲우리쌀 곡물과자 5종 ▲홍천 고향찰현미 15봉 ▲뱅어포 6봉 ▲한돈뒷고기 1.6kg ▲홍대감육포 25봉 ▲위치룩행주티슈 10팩을 판매한다. 판매가는 숯물티슈가 1만4900원, 나머지 상품들은 1만9900원이다. 19일부터 한 주간 매일 3회씩 방송한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한미반도체, 2분기 매출 1087억... 창사 이래 최대
- ▲ 현대차·기아 자체 접종 백신... 모더나서 화이자로 바꾼다



- ▲ 전문가들 “변이 코로나 전방위 대책 시급”...이대론 확산세 못 꺾어
- ▲ 전광훈 교회 대면예배 강행... 서울시 “증거수집해 운영중단 조치” /사진 뉴스



- ▲ 오세훈 “자발적 코로나 검사 부탁... 소상공인 희생·인내 함께” /사진 뉴스
- ▲ 경찰, 민주노총 집회 25명 내·수사... “위원장 압수수색”